

국내 최대 규모 새만금 국가정원 공약

김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민주당 시군 대선공약 반영 사업비 5472억 "전액 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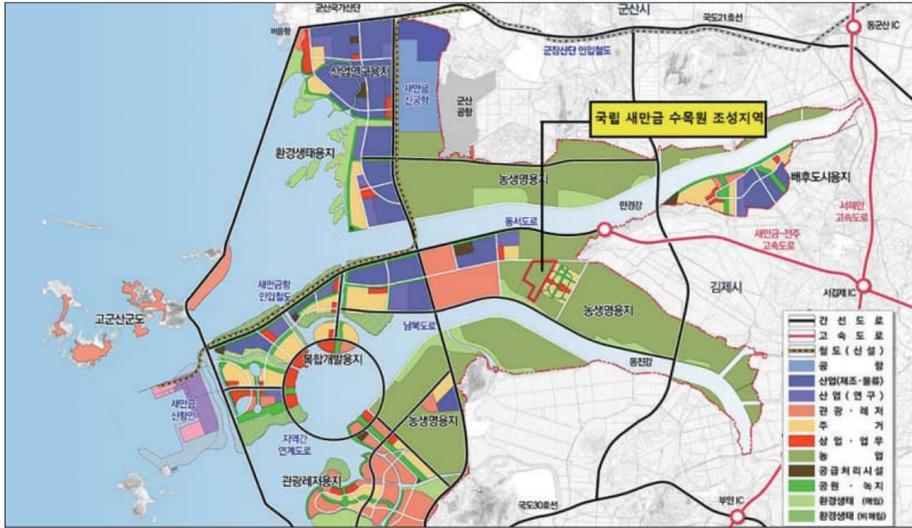
D-8 6.3 대선

새만금에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조성이 추진될지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총사업비만 5천 400억원을 웃도는 대형사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김제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10년간(203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면적은 100ha(100만㎡)이며, 총사업비는 5천47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조성비가 2천988억원, 매립비가 2천484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업 시행은 산림청이 맡게 되며,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유력하다. 김제시와 이원택 국회의원실 간 협의를 거쳐 사실상 부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새만금개발청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사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순천만 두 배 규모' 대형사업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이 민주당 대선공약에 반영되며 가속화 여부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위치도.

전북도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3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3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서해안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벽

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다. 기재부는 기존처럼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한 후 성과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순천만과 대화강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전북도와 김제시는 새만금의 상징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애초부터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야 하며,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심의 과정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접근성 개선도 시급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반면, 새만금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정원 조성과 병행한 도로·철도 확충이 요구되는 이유다.

/서울=김영목 기자

해수부 '김 육상양식' 컨소시엄 전북 최종 선정

5년간 국비 350억 원 투입 종자배양·실증시설 추진 새만금 수출가공단지 연계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사업'에 전북도가 참여한 연구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김 양식 식품안전성 확보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비 3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육상양식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대응해 겨울철 바다에서만 생산되던 김을 육상의 독립된 환경에서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CI, 동원, 대상, 풀무원 등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전북도가 선정된 배경에는 꾸준한 선행 연구와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있

었다. 전북도는 2022년 풀무원과 공동 연구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함께 김 생산성 향상 연구를 지속해 왔다.

2023년부터는 공주대학교 김광훈 교수 연구팀과 김 종자 대량배양 연구에 착수하고, 자체 종자 배양시설도 구축했다. 2024년에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조성 방안까지 마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공주대 김광훈 교수와 포항공대 황동수 교수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종자생산 분야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풀무원은 군산시에서 새만금 2공구에 4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올해 하반기 실증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육상양식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10월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김 육상양식 분야의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팀 먼저 구성"

"6월 4일 난파선 키 잡아야 내란 단죄·정치보복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뵈었다"며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다. 민주당이나 국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치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이재명이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된 후보와 정당만이 삼각파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이재명 후보

또한 "통상 사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비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 우리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국민통합 정부'를 꾸리겠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국가재난관리 대통령 기관 표창

인명사고 등 '제로' 재대본 운영

전북자치도가 재난 예방과 대응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방재의 날'을 맞아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자치도의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와 선제적 예방 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전북도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선제적 재난 대응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실적을 인정 받았다. 특히 민선8기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도는 집중호우와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지하차도 인명탈출시설 설치, 대청방 방류량 조정 건의 등 사전 조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에 신속 대응해 응급복구와 내진 보강 예산 28억 원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900건을 실시했다.

/정소민 기자

더불어 함께 하는 밝은 미래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타임스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正論直筆

道, 190억 출자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 박차

총 1,840억 규모 조성 목표 창업·소부장·세컨더리 등 비수도권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 위한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2025년 제2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총 19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투자사 6곳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벤처(엔젤투자), 소

재·부품·장비,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산업기술혁신), 세컨더리(일반·지역 AC) 등 4개 분야, 총 6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도는 정읍시 출자금 10억 원을 포함해 총 190억원을 출자하며, 이를 기반으로 총 1,84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자 규모는 총 190억원으로 '창업·벤처(엔젤투자지원) 15억원, 소재·부품·장비 50억원, 스케일업 80억원(오픈이노베이션 50, 산업기술혁신30), 세컨더리 45억원(일반 30, 지역AC 15)이다. 운용사 선정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6

월 11일까지이며, 전북도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까지 우선협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 투자정책으로,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250억원 이상을 출자해 총 1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갈증을 겪는 유망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다. 1조 원의 펀드가 조성되면, 전북도가

출자한 1,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민간 자금 유입을 통해 총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도내 기업에 공급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는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들어 1조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목표로 지난 2년간 창업 초기기업에 비중을 뒀다면,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유망 기업 스케일업 및 집중 투자 지원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실시

오늘부터 29일까지 454척·3천51명 참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천51명이 참여한다.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25일까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

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다만,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포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월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대만 '한국여행엑스포'서 K-관광 매력 발산

전주등6개 지자체공동 홍보관 드라마등촬영지콘텐츠홍보

전북자치도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 대만 최대 관광박람회인 TTE(대만국제관광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총 19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한국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남원, 임실, 정읍, 고창, 부안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홍보관을 구성해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고창 청보리밭(드라마 '뽕짝 속았수다') △전주 한벽

굴(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군산 경암동 절길마을(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등이 대표 콘텐츠로 소개된다. 홍보관에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 추천 코스, 개별·단체 여행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관광지도 및 외국어 리플릿 배포, 전북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또한 도는 박람회 기간 동안 열리는 '바이어 상담회'에도 참가해 대만 현지 여행사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과 관광상품 연계 개발을 통한 협업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 셀럽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크리에이터 쇼', '한·대만 관광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에도 참여해 전북 관광 브랜드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정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전북자치도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

번 박람회는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해외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지 관광업계와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전북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지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상생 가치 도정에 담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번 추도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주제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100인 시민합창단의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을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행사에서는 3천여 명의 국민과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묘역을 참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셨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갈등보다는 협력, 대립보다는 상생의 가치를 도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도내 예술인 등 12만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자치도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 11만5천여명이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전북 지역상인회, 예술인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폭넓은 민심이 결집된 상징적 행사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시대 교육과 정신문화의 중심이자 공정과 정의의 상징 공간인 전

주향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전북의 시대정신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 안호영 의원은 "오늘 전북의 정신과 혼을 지켜오신 시민사회와 예술계 12만여분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큰 용기를 안겨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다"고 환영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모색

"경남·강원도·부산시 등 조례 제정 시행·다양한 성과 창출하고 있어"



이수진 도의원

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바른지역연련대 유범수 이사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공청회는 창원대 이견혁 교수가 '지역신문 지원의 필요성과 조례제정 방향(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제한 뒤, 토론 패널들의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견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 속 지역미디어 지원 체계 마련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단위의 별도 기금 조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 토론을 통해 △지역신문 특별법 대비 차별적인 지원 사업 구성 △필수 지원 및 우선 지원 선정 방식 확립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사업 발굴 등이 논의됐다. 이수진 의원은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지역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 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해안들을 담아 빠른 시일 안에 조례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발전 방향 공동 모색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고창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제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군·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은평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도 재정과장은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전주시, 비보이그랑프리스서 올림픽 유치 홍보

브레이킹, 올림픽 종목 채택 비보이 관심 커져 현장 찾아 전주 유치 필요성 설명

전주시가 유럽과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는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의 대회 현장을 찾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비보이 대회 현장을 찾아 국내외 참여하는 선수와 방문객을 상대로 하계올림픽의 전주 유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 브레이킹 종목이 '2024 파리 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비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비보이그랑프리 본 대

회가 열리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야외마당 등을 오가면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선수와 방문객을 상대로 설명했다. 특히 외국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은 비보이 선수뿐 아니라 비보이 팬들에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에 힘을 쏟았다. 시는 이번 홍보활동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 대회 등을 직접 찾아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주 관계자는 "비보이 문화의 중심인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최적의 행사이며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하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열정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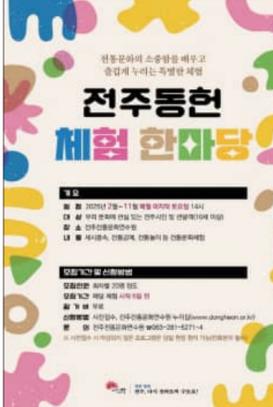
전주전통문화연수원, 31일 단오 전통놀이 운영

장명루 만들기·저포 등 고유 민속놀이 무료 체험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오는 31일 전주 동헌 체험 한마당의 일환으로 '단오에 즐기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을 찾은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단오를 맞아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명루(소원팔찌) 만들기 및 전통놀이(저포, 화가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명루(長命纆)'는 빨강·노랑·파랑·검정·흰색의 오색실을 사용해 짜는 팔찌로, 잡귀와 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단오 풍습 중 하나이다.

'저포(擲浦)'는 가죽나무(檣)와 부들(蒲)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든 데에서 유래했는데,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민속놀이로 율놀이와 비슷하다. 끝으로 '화가투(花歌擲)'는 '꽃과 같은 노래(시조)로 다룬다'는 뜻으로, 시조가 적힌 카드를 이용해 누가 더 많은 시조를 외우고 있는지를 겨루는 놀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과 시조를 잊지 않기 위해 널리 보급돼 일제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고전형 화가투를 응용한 절기형 화가투를 통해 24절기와 세시풍속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사전 접수 시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이번 5월 행사에 이어 매월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전주 사포 다과상(6월) △전주 한지에 그리는 동양화(7월) △국가무형유산 김동식 선자장과 함께하는 부채 만들기(8월) △독서의 계절에 만드는 매듭 책갈피(9월) △전주동헌 우리 놀이터(10월) △전주동헌에서 만나는 자개 공예(11월)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전통 명절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있고 있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리나라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날을 기념해 오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전주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념하는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 포스터에는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정과 장소가 소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행사: 2025. 5. 23(금) 14:00 전주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
- 행사 내용: 장명루 만들기, 저포 만들기, 화가투 체험, 전통놀이 체험
- 대상: 전주 시민, 관광객, 단체 등
- 문의처: 전주전통문화연수원 (02-271-4271)

전주덕진소방,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증상 따라 Level 1~5 분류 생존·치료 병원 선택 이송된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119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가장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이다. 구급대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병원이 아닌, 해당 치료가 가능한 전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병원 선택의 핵심이다. "왜 저 병원 안 가고, 멀리 돌아가는 거죠?" 응급상황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때, 많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 과거에는 병원까지 거리가 우선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 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응급환자는 증상에 따라 Level 1부터 5까지 분류된다. Level 1은 심정지·무호흡 등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Level 2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위급한 상태다. Level 4-5는 경미한 증상으로, 이 분류는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응급실 과밀 여부, 의료 장비 작동 상태, 해당 진료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환자나 보호자의 병원 요청이 있더라도,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시민들이 이송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강봉화 서장은 "응급환자 이송은 단순한 병원이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라며 "현장 판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임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23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신규 도입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및 지휘부 등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해 관제차량 제원설명 등을 청취하며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효율적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영상관제차량에는 드론 촬영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차량 내부 소형 모니터 5대와 75인치 외부 대형 모니터 1대를 통해 현장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기존 운영 체계 대비 효율적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문 청장은 "경찰 드론이 다각적 치안활동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 긴급 출동 '길 터주기' 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2일 화재·구조·구급 출동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일환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훈련과 시민 동승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과 체험은 시민들이 소방차 출동 시 긴박함을 직접 체험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소방공무원과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40여명, 완산시위 동 소방차 5대를 동원해 진행됐다. 이들은 중앙시장, 중앙상가 등 관내

주요 통행시점에서 울버린 길 터주기 방법을 홍보하며 출동로 상태를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이내) 차량 계도 활동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이어가며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길 터주기 협조는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체험 기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윤동욱 전주 부시장, 국가재난관리 유공 훈장 수훈

재난 대응 성과 탁월 '홍조근정훈장' 수여

윤동욱 전주 부시장이 국가 재난 관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32회 방재의 날' 기념행사에서 윤동욱 부시장이 국가재난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받았다고 밝혔다. '방재의 날'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정부는 방재의 날을 기념해 재난 대응 및 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부시장은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과 도민안전실장 등을 역임하며 재난·안전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헌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정부는 전주시 부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하며 32년간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 피해 '제로화' 달성 등 안전산업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윤 부시장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준 전주시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라며 "앞으로도 '시민



전북경찰청, 강풍대비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집중호우 및 강풍에 의한 지역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경찰·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5월 말부터 도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고장 상태와 노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제보 시 긴급 보수 체계도 함께 운영되며 도민들

에게도 시설물 훼손이나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비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정비가 필수라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비점오염원 사업장·관계자 교육

관계자 4백명 대상 여과재 적기 교체 등 집중 교육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지난 23일 전북대 공대 8호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및 비점오염원 사업장 관계자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 관리 강화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비점(非点)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 장소의 지표면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쓸려 하천에 유입돼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새만금유역내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은 91%(23년 T-P항목 기준)이다. 해마다 증가 추이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급변 경우 때이른 더위와 함께 집중형·반복형 경우 전방이 있어 초기 강우(5mm) 시 유입되는 다량의 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강우 예보시 사업장 주변을 미리 살펴 야적장 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이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및 지휘부 등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해 관제차량 제원설명 등을 청취하며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효율적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영상관제차량에는 드론 촬영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차량 내부 소형 모니터 5대와 75인치 외부 대형 모니터 1대를 통해 현장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기존 운영 체계 대비 효율적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문 청장은 "경찰 드론이 다각적 치안활동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道, 세계적 의료기관과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美 메이요클리닉, 전북 방문 공동연구 등 투자 모델 논의 전북 혁신의료기기 역량 결합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 명성의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메이요클리닉 신경공학·정밀수술 연구 소장 켈달 리(Kendall Lee) 교수 등 4명의 방문단이 전북을 찾아 기업 유치 및 공동 연구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김관영 도지사가 미국을 찾아 메이요클리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 유치, 공동 연구개발, 글로벌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켈달 리 교수는 메이요클리닉 산하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AI 기반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더불어 의료기기 스타트업 NAVINETICS의 공동 CEO로도 활동하고 있다. 메이요클리닉은 1864년 설립된 미국 최고의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임상 진료와 연구, 교육을 통합한 세계적 의료 혁신기관으로 평가받는다.

방문단은 첫날인 22일 김관영 지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청에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들과 기업 유치 전략과 연구개발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예정지를 둘러봤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북대학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와 전북대병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해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살펴보고, 전북대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협력 및 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 명성의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사진=전북자치도>

질적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강점을 지닌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및 신경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이요클리

닉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 기대한다”며 “전북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재단, 지역밀착 공익사업에 5억 지원

'우리동네 어부바' 발대식 복지 캠페인-공익활동 확대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전국 신협이 지역밀착형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5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예산을 지원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2일 대전 신협 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전국에서 선정된 신협 및 봉사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실천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는 지역 신협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 봉사단(이하 봉사단)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2만 4천여 명의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누적 수혜자는 130,800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전국 36개 신협과 13개

시·도 지역 봉사단을 선정하여 신협에는 최대 500만 원, 봉사단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0만 원, 5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신협재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도서 지역의 드론 배송 인프라 지원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미혼부모 경제 교육 및 재무상담 문맹 어르신 한글교육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익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신협재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지원, 협동조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링 및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등 65억 원 규모의 캠페인과 공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디지털금융 중심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본격화

수도권 핀테크 투자 유치 총력 지방균형발전 이룰 '첫걸음' 기업 육성 맞춤형 지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소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 디지털금융 정책 및 핀테크육성지구 기본계획 설명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위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 정책과 '핀테크육성지구' 조성 계획을 공유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에 대한 외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육성지구의 비전과 전략, 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 기업 대상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도 함께 운영됐다.

전북핀테크육성지구는 '전북특별법' 제71조 및 '전북 금융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핀테크 특화지구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일대 약 86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구 내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금융 기업을 집적시켜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게는 입지·설비·교육·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방세 감면, 맞춤형 법률·세무 컨설팅, IR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예고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오는 6월 말까지 지구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를 위해 관련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핀테크육성지구는 디지털금융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유망 핀테크 기업이 전북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익산·정읍·김제 산업단지 조성 '청신호'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의결 용자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합심실에서 '2025년 제1회 전북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 김제, 정읍 지역의 산업단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안) 등 총 3건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의결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 등 8개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와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산업단의 경쟁력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도 포함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 조건부

의결했으며,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각각 산업단지계획 또는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위원과 8개 각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 '기업 지원' 리더스 1차 포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는 기업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리더스 1차 포럼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노무법인 도와 최은나 대표가 강사로 나와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강의했다.

설명회에서 최 대표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총 10개과정에 대해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자 책임과 역할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

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적절한 매뉴얼이 회사별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종사자 의견 청취와 사전 교육”이라며 “중소기업 일수록 철저한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방섭 회장은 “포럼을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강연해 줬다”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우리 회원들 스스로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기관합동 도상훈련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기관합동 도상훈련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남원소방서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전소소방본부, 남원소방서, 남원시보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특히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응급처치부터 병원 이송, 전반적인 구급 대응 과정 등을

점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Triage) △현장지휘체계 구성 △의료 지원 연계 및 병원 수용 방안 등을 모의해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도상훈련을 통해 재난 시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과 의료지원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공유했다.

또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전주권 필수의료 협력 논의 본격화

지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개최 전주권 공공의료 연계 강화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은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2025년 상반기 필수의료 원외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주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체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소개 및 추진 경과 공유 △사업 연계 협력 방안 논의 △필수보건의료 협력 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예수병원은 지난해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민의 건강권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군산에 1억 상당 완구 기탁

완구 경영자 워크숍 개최 기념 완구공업협동조합 경영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3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완구 경영자 워크숍 현장에서 1억 원 상당의 아동용 완구 8천여 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25년도 전국 완구 경영자 워크숍을 군산에서 개최하는 기념으로 이뤄졌다. 시는 전달받은 완구를 저소득 가정 및 아동시설의 아동들에게 전달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달식에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소재규 이사장, 한국

완구공업협동조합 경영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소재규 이사장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상상력을 키운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완구 산업의 성장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대표적 조합으로서, 소수 기업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이뤄진 행사도 상호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교육청, 국제교류수업 학교 '86개교로 확대'

3년 연속참여 학교 수증가
23일 1차 컨설팅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로 3년째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확대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40개교로 시작한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2024년 61개교, 2025년 86개교로 해마다 20개교씩 증가했다. 3년간 누적 187개교, 참여학생수는 5,000여 명에 이른다.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함양 및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교육 기반의 글로벌 학습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공동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 해외학교 초청수업 등 여러 유형의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업 중심 모델로 설계돼 있다. 참여 학생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로 3년째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확대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외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공유하고, 이후 교류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에 해외학교를 초청해 대면 수업을 이어감으로써 수업의 실천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도,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 등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평화·인권·역사 이해 △다문화·상호이해교육 △첨단기술 기반 진로 탐색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세계시민성 및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형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교류수업 학교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제교류수업 학교관리자 및 인솔 교원을 대상으로 1차 해외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을 가졌다.

안전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 △숙박·교통수단의 안전성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국제교류수업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통해 세계와 소통·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국제교류수업 학교들의 해외 학교와의 교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중등 영어교원, 전문성 함양 위해 한자리에

26일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
맞춤형 수업설계 사례 나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6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학생 맞춤형 영어수업과 영어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중등 영어 교원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WinC(윈크) 프로젝트 사례 발표 △에듀테크 기반 영어 기초학력 향상 방안 △영어과 학습부진에 대한 이해: 원인과 쟁점 △영어수업전문가 연수 사례 나눔 등으로, 현장 중심의 강연과 실제 적용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윈크는 'We increase confidence in English(우리 모두 함께 영어 자신감 향상)'라는 의미로,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영어 한문장 학습으로 영어 자신감을 향상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윈크의 교수학습 자료 전시 및 나눔 행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한 학습자료와 학생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교사 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로 구성된 윈크 지원단이 직접 참여해 수업 설계 아이디어와 실행 기술을 공유해 보다 내실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국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용

전북 도내 교원 가운데 70%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캠프가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를 받았다.

이 가운데 99%가 넘는 교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캠프가 전북 도내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시 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안과 관련해 23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도내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임명장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 중 99.8%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8%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총이 자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19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70%가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수신했다고 응답했다"며 "대다수 교원이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고, 정치적 연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금치산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교원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특보'라는 정치적 직함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교원의 명예와 경력을 위협하는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교원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우리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특정 정당을 떠나 교원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의 개인정보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정치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교원들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경, 전북 도내 교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교육특보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 개소

K-방산 인재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와 함께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를 지난 22일 대학 내에 개소했다.

이번 특화연구센터 개소는 K-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북대와 관련 분야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손을 맞잡아 이뤄진 것으로, 산학연 협력의 모범사례가 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K-방위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 대학과 기업,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는 양오봉 총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개소식은 김관영 도지사의 축사와 손재일 대표의 인사 및 사업 소개에 이어 현관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소한 HUB 특화연구센터는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방위산업 분야의 집중 육성하고 첨단 방산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밀유도 기술, 첨단소재 개발,

미래 항공엔진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술 실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인 방위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20명 정원의 '첨단방산학과'를 신설해 K-방산 핵심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센터의 개소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포, 잠수함 및 합정 MRO 등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산업적 역량과 전북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결합된 사례로, 산학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전문성 강화

연수개최·멘토-멘티 체제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전문성 강화 연수를 24일 전주비전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

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컨설팅노하우를 지닌 고등학교 교사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65명을 구성하고, 단위 학교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 연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부 훈령 504호의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재 요령 안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해 부당정정 및 오류 기재를 사전 예방,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 사항 및 출결 변화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실무지원단 간의 멘토-멘티 체제도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과 전문성을 공유한다.

이는 단위 학교의 기록 책무성 강화

및 관리체계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진로와 진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 교원들의 기재 역량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유효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춘곤증의 계절 봄,

졸음 운전 조심하세요!

졸음의 원인

봄날의 적 춘곤증!

- 1 봄이오며 기온이 올라가 날씨가 따뜻해 짐
- 2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급격한 피로감을 느낌
- 3 식사 후 식곤증에 의한 졸음유발

졸음운전 안돼요!

졸릴때 꼭 쉬어갑시다.

졸음운전 예방 방법

- 1 오전 2~4시 / 오후 12시 ~14시 운전 피하기 <춘곤증 극대화 되는시간 피하기>
- 2 수시로 환기 시키 <창문열어 차량 내부 공기 순환하기>
- 3 커피 NO! 졸음쉼터 또는 정차 후 휴식하기 <장거리 운전시 2시간 간격으로 휴식>

익산시, 승마체험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익산시가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한 야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451명(일반승마 448, 사회공익 3)으로,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호스피아 누리집(www.horsepia.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험 참여자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추첨 결과는 6월 10일 호스피아 누리집을 통해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체험은 총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과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기초 승마 등 다양한 강습이 진행된다. 일반 체험 참가자는 9만 6,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사회공익승마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다양한 승마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4개 승마장에서 운영되며, 모든 학생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된 후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 체험은 대상자 선정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공공기숙사 개관

총 18억 투입 최대 54명 입주 농번기 인력지원 체계 강화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북면 칠북로에 위치한 공공기숙사에서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과 필리핀 자스민 마갈데스 시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공공기숙사는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1441㎡) 규모로 객실 26실, 공동취사실과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최대 54명이 입주 가능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면접을 거쳐 선발된 우수 인력 39명을 기숙



정읍시가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사진=정읍시>

사에 입주시키고,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하루 단위로 유연하게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심화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핵심 농정 과제로 정하고 2022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22년 22명, 2023년 250명, 지난해에는 5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며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법무부가 주관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학수 시장은 "공공기숙사의 개관은 정읍 농정의 새로운 변화이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보건소,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자살예방교육·캠페인등활동

군산보건소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강사 서포터즈 25명, 일반인 서포터즈 57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 서포터즈는 '자살예방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인 서포터즈는 군산시민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현장 밀착형 활동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수단 접근 차단을 위한 설치물 △자살위기자 발굴 및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발대식을 마친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누구라도 우울 및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도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한국실명예방재단 '맞손' 눈 건강 지키기 앞장

정읍시 보건소는 지난 21일 신대인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2025년 무료 안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고령자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실명을 예방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실명예방재단 소속 전문 검진팀이 현장을 찾아 시력, 굴절, 안압,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총 5종의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이후 1대1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시력 상태를 안내했다.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대상자에게는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했고, 필요한 경우 인공눈물, 항생제, 백내장 지연제 등 안약도 처방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보건소를 통해 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누리집 개편...내년 새 얼굴로 만난다

누리집 포함 29개 웹사이트 개선

익산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익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익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석 부시장과 누리집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개편 대상은 익산시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총 29개 웹사이트로 문화관광,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옹호관광캠프장, 통합예약시스템, 교도소세탁장 등의 누리집이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8개월간 진행된다. 개편의 핵심은 디자인과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구현 △통합검색 기능 강화 △카드결제 기능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 간편화 △사회적 약자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접자 서비스 탑재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조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선 성과

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강영석 부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익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의료원, 수도권 명의로들과 함께 지역의료

지역주민에 최고수준 전문 진료 제공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이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주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고 퇴직한 저명한 의료진을 영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군가는 지역이료를 지켜야죠"라는 사명감 아래 군산에 둥지를 튼 명의로들은 △유방암·갑상선암 전문 소의영(외과) △뇌전증·수면장애 전문 이삼양(신경과) △화상·육창·안면부 외상 전문 오석준(성형외과) △척추퇴행성질환·척추골절 전문 전창훈(정형외

과) △수부외상·미세수술 전문 임종선(성형외과)△임플란트·보철 전문 오세광(치과) △대장암·직장암·탈장 전문 김일동(외과) 등 각 전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산의료원은 중증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 난도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병원,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진료하는 진짜 이료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 대비 총력

집중호우 상황 가정 실전형 훈련 군경소방등 17개 기관단체 참여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3일 풍수해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높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국가적 훈련이다.

이날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익산경찰

서, 제9585부대 3세대, 제7557부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총 1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풍수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집중호우 발생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취약성 파악 및 대비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 훈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천배수펌프장 일대 사고 현장을 이월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난 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익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정현울 시장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가 진행됐다. 집중 호우로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현장 대응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훈련은 유천배수펌프장 일대에 사상자와 매몰자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이재민구호, 수습·복구 순으로 훈련을 진행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량을 높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숲과 친구가 되는 하루' 익산 녹차밭 숲속문화제

익산시는 23일 옹포면 함라산 일원에 위치한 야생 녹차나무 군락지를 배경으로 '숲속문화제'를 열고, 지역 초등학생 150여 명과 함께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지원으로,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이 주관해 익산산림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보고, 만지고, 만들고, 느끼고, 배우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열린 함라산 일대는 국립 익산 차유의 숲을 중심으로하는 명품 임도, 녹차밭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옹포 품개나무 △옹안 생태습지공원 △공공공매장 △교도소세탁장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해 교육·관광 복합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돌봄서비스 강화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민관협력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통합지원서비스 발굴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협약에는 정읍의 공공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정읍아산병원과 지역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지원서비스의 실질적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아산병원은 가정간호, 은빛재활센터 운영,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

계할 예정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응급지원, 예방교육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공직자들, 청렴골든벨...청렴 문화 확산

정읍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퀴즈 방식의 '청렴 골든벨'을 개최하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 의식 고취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참여형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실효성과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무선 리모컨 방식의 스마트 퀴즈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몰입도가 높았고, 부서별 응원전까지 더해져 조직 간 유대감도 강화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최지훈 주무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시민소통실 박승연 주무관, 3위는 회계과 정원희 주무관이 수상했다.

응원 부문에서는 시민소통실과 상고동이 응원상을 공동 수상해 청렴 실천 의지뿐 아니라 조직의 화합과 열정도 함께 인정받았다. 청렴골든벨의 마지막 문제는 이학수 시장이 출제자로 나서며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 시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시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축산농가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만든다

여름철 앞두고 악취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농가와 함께 축산악취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도심 인근 및 밀집지역 축산농가 38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하절기 축산악취 지도점검 계획 안내 △축종별 악취 관리 방법 △저감시설 운영 매뉴얼 배포 △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으며, 축산농가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실질적 저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축산악취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축산악취 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협력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본격 준비

10월 29일~11월 2일 개최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고창군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사대행 운영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전문 대행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행사는 고창군과 함께 축제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지역 인사, 문화예술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고창군은 고창모양성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올해 축제는 더 새롭고, 더 화려하



제51회 고창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

<사진=고창군>

며,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읍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고창만의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고창읍성-꽃정원-자연마당 구역과 서문 민속마을까지 행사장을 대폭 확장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로 52회를 맞는 고창모양성제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진정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고창만의 독창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변산마실길, 샹스타데이 만개

24코스 6월 20일까지 감상

부안 변산마실길이 다시 한번 순백의 꽃길로 변신했다.

부안군은 매년 5월이면 꽃망울을 터뜨리는 샹스타데이가 변산마실길 2코스와 4코스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변산마실길의 샹스타데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명소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샹스타데이 개최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장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과 최형인 과장은 “샹스타데이와 서해 낙조가 어우러진 풍경은 변산마실길의 자랑이지만 휴일에는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어 변산해수욕장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고보 출신 독립유공자 6인 후손 초청 간담회

고창군이 지난 23일 제106주년 3·1절 계기로 서훈이 수여된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고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6인의 후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고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과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

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순욱(전북 김제), 이영규(전남 장성), 윤선호(전북 순창), 박재우(전남 부안), 윤옥하(전남 해남), 양화영(전남 화순) 선생의 후손 1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군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사업 선정

‘꿈의 향연’ 선정 국비 확보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국 합동프로젝트에 공식 합류하며 국비 2300만원을 확보해 지역 청소년 음악교육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부안군의 품의 오케스트라 주제는 ‘Aria of Dreams’로 단순한 연주 무대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하나의 서사이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단원 각자의 성장 이야기와 꿈을 담아낸 선곡을 통해, 음악이 가진 위로와 응원, 연대의 힘을 전한다. 국비 확보와 프로젝트 선정은 부안군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부안 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예술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담당자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동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 돌봄 통합지원팀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실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실질적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이날 교육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절차,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실무자의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고창군이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2월부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4억72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57동, 비주택 43동, 지붕개량 70동 신청했다.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천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환상의 마술쇼 ‘부안매직페스타’ 6월 10일 부안예술회관서 선포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부안매직페스타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안매직페스타는 부안예술회관 기획 공연으로 국내 최정상급 마술사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대형 마술 콘서트다.

본 공연은 몽환적인 시각효과와 아트버블쇼, 의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고난도 퍼포먼스인 커스텀체인지, 마술과 서커스를 결합한 매직서커스, 관객에게 마술 도구를 나눠주는 체험 등으로 구성돼 관객과의 소통과 몰입감을 높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김윤형, 유원석, 최강보, 이창민, 오은영, 이진규 등 각기 다른 개성과 무대를 가진 마술사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공연 콘텐츠를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전석 만원이며 부안군민은 90% 할인돼 1000원이다.

좌석예매는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보건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호응

고창군보건소는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확대돼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가 신청할 수 있다. 예비 부부나 사실희 관계의 15~19세 청소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비자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해 더욱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지원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자정밀형태검사(△, △25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당 여성은 최대 13만원이며,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은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여정”이라며,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공모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2년간 기업부담금 추가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장기제직을 위한 ‘김제형 내일채움공제’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형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지원하는 것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납부금 월 12만원 이내로 2

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제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을, 기업은 24만원을 납입하며, 5년간 적립된 금액과 이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10만원을 김제시에서 지원해 왔는데 나머지 기업부담금 14만원 중 10만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 총 가입기간 5년 중 2년간 지원하게 돼 기업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

6월 2일~7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 이후 행정처분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축조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된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군은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하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2백만원·최대 7년 지원 6월 9일~20일까지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

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야 한다.

지원금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

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월 9일부터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건축주 서탁행정팀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살기 좋은 농촌' 전국 1위

'농어촌 삶의 질' 1위 선정 인구·청년 증가 높은 상승 기대수명 부문 2위 기록

완주군이 전국 농어촌 군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뽑혔다. 군은 지난 23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최근 전국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한 결과 완주군이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완주군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7.26점으로 나타났지만 완주군은 무려 12.39점이 높은 49.65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완주군은 지역활력,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역활력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활력 영역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평가에서 1위로 경종 뛰었다.

보건복지 영역은 5위, 문화공동체 영역은 8위를 기록했다.

농어업위는 완주군이 인구증가율, 청년인구 비율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기대수명과 배우자 만족도에서 지수가 높게 산출되는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실제, 완주군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기업유치,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차별화된 인구정책, 활발한 귀농귀촌 인구 유

입 등으로 10만 인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청년인구도 4월 말 기준 2만 9,68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여성 비율도 2022년 12월 기준 1만 6,230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만 7,705명으로 9%가 늘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 청년인구 비율 증가는 농어촌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보건복지 예산비율도 지난해 29.0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기대수명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주요 도시지역에서 높게 책정된 사업체 수에서도 완주군은 4위를 기록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1인당 GRDP 9위, 재정자립도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어르신 일자리 안내서 제작

쉬운 이해·활용 위한 구성 사업 내용·신청 방법 등 수록

완주군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즐거움, 든든한 노후의 시작 - 완주군 어르신 일자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참여 요건, 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등 일자리 유형별 특징을 소개하고, 관내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과 문의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수록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또한, 실제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사진을 함께 실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며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제작된 안내서는 완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에 비치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코너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완주군, '취학 전 천권읽기' 후속 '천사 프로젝트' 내달 발대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완주군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천 권 읽기를 달성한 어린이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천사 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하루에 1권씩 3년간 1,000권 책 읽기 운동으로 북스타트(0~18개월) 이후 취학 전까지 독서 공백을 채워주는 대표 책육아 프로그램이다. '천사'는 천 권 달성 꼬마사서의 줄임말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2,000여 명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며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1명의 어린이가 천 권 읽기를 달성했다.

'천사 프로젝트'는 천 권 달성 이후에도 독서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책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독고, 양육자의 책 육아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 13일 '천사 단원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어린이 대상 책놀이 및 도서 추천 활동인 '천사들의 별별책' ▲양육자 대상 책 육아 글쓰기 '천 권 읽는 문장공방'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책 추천 라디오 DJ가 되어보는 '천사들의 On Air' 등이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서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가린다

내일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체육진흥·지역경제 활력

스포츠산업의 중심 순창군이 전국 주니어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문 체육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번 선발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 주관,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치워진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내 선발전을 넘어 한국 소프트테니스의 미래를 이끌 주니어 국가대표를 공식 선발하는 중요한 행사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우수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해 2025 아시아 주니



순창군이 내일부터 전국 주니어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다. <사진=순창군>

어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걸고 실력을 겨룬다.

또한, 이번 선발전은 선수 개인의 국제 무대 진출은 물론, 실업팀 입단 및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해, 주니어 선수들에게 중대한 도전의 무대가 될 것으로

/순창=박지현 기자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약 200여 명의 선수단, 학부모, 지도자 등이 순창을 찾은 것으로 예상돼 숙박, 외식,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여성 미니 채용·창업박람회 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 진행 현장면접·컨설팅 부스 등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3일 남원시 평생학습관 별관 2층에서 여성 구직자와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미니채용·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다시 일하는 기쁨'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 1:1 현장면접 부스, 창업컨설팅과 노무 상담, 경력

단절예방사업 상담 등 컨설팅 부스, 지문인식진로검사와 증명사진 촬영, 정리수납 창업팀 부대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현장면접에서는 지리산주간보호센터 외 3개 업체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 21개 기업체 구인 정보를 공유해 조건에 맞는 구직자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일자리 유관기관 및 타 새일센터와의 협력으로 취업 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토요일 바둑 교실 '인기'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이 '까만돌, 하얀돌 바둑 톡톡' 바둑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조종길 아마 4단 기사의 강의로 초·중·고학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바둑 프로그램은 바둑의 기본적인 규칙부터 전략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바둑을 통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회차마다 바둑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기에 힘입어 방과후아카데미에도 바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춘향제 '숨은 주역' 자원봉사단 해단

23일 자방단 해단식 개최 춘향제 빛낸 1900여명 헌신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95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은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1,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춘향제 기간 중 관람객 안내와 편의 제공, 환경정화 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춘향제 성공개최를 위해 크고 작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특히, 작년 말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광주대, 전주대, 원광대 및 한일장신대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450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95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여 명이 참여해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은 강남제비스코(주)에서도 자원봉사에 참여, 남원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해단식에서는 축제 기간 중 자원봉사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60명의 자원봉사 유공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순창문화원은 지난 23일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제일고 학생들,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순창문화원, 탐방 행사 개최 광복소나무·구암정 등 견학

순창문화원은 지난 23일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직접 찾아보며 조상들의 슬기와 덕망을 재인식하고, 청소년들에게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하루 종일 순창군 관

내 주요 문화유적지를 차례로 둘러봤다. 첫 번째 탐방지인 적성초등학교의 광복소나무를 시작으로 남원양씨 종택, 구암정 등 조선시대 유적을 견학했다.

오전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순창향교를 거쳐 순창전통고추장만들기마루에서 중식을 했으며, 오후에는 토굴과 발효테마파크를 차례로 탐방하며 순창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와 발효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남원시 홍보대사 김범준(SBS특채·MBN 공채 개그맨)이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경제불황 시기에 또 뜻한 고향사랑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김범준은 지자체·관공서·기업 등 행사 MC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체육대 스포츠산업학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튜브 "산타는 개그맨"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에게 흥미있는 등산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전문 방송인이다.

또한 남원시 홍보대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원을 자랑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범준은 "역사 깊은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고향 남원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고향사랑기금이 라는 좋은 제도에 참여해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서 전국 청소년 '생존 훈련 캠프' 열린다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 참여자 500명 선착순 모집

제2회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 참가자 모집이 이달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DB순해보협과 소방청이 주최, 전북소방본부와 남원시가 주관하고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전국 10~12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남원시와 임실군 일원

에서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 상황별 안전 체험과 피난, 응급처치 등 대응 방안 교육은 청소년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를 유치하게 되어 지

역 홍보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과 관련된 6가지 안전 체험 △산악사고, 캠프 관련 안전 체험 △안전골든벨, 화재대피훈련 등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의 지리산 등 자연 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지역안전지수 실질적 개선 모색

안전지수향상 실무자 회의 개최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염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군,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등 담당 부서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관련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 간 안전정도에 대한 등급

을 계량화해 매년 연말에 공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2024년 순창군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위해지표'로 분류되는 사망자수와 발생 건수의 감축이 지수 개선의 핵심으로 강조됐으며, 분야별로 실질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보강,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율 제고 등이 포함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 장수읍 시사협, 아이 첫 돌 축하 선물·축하금 전달

장수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차주영·민간위원장 김점옥)는 지난 22일 관내 첫돌을 맞이한 가구에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축하금을 전달하며 아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했다.

‘첫 돌 축하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의 특화사업으로 첫 생일을 맞이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초청해 축하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실시하게 됐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가정은 “사회적·지리적 소통이 줄어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지역 분들과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축하금과 축하용품 등을 받아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주영 읍장은 “첫돌 축하사업이 저출산 문제와 개인화가 심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임실군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늘 임실을 임실시장 일대에서 금연 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세계 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해 올해로 38회를 맞이했다.

이번 캠페인과 병행해 12개 읍·면에 금연 홍보 현수막을 한 달간 게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흡연 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금연클리닉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김대근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 1차 모임 단체장 등 40여명 협력 첫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지난 23일 진안군가족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네트워크 1차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지역 내 각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진안군 복지 발전을 위한 제안을 쏟아냈다.

‘이해의 시작으로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는 진안군 복지 기관·시설·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군민 중심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교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주요 복지 분야별로 대표를 선정해 협업 가능한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김진 회장은 “이번 1차 모임은 연중 추진될 복지네트워크 사업의 시작점으로, 정보 교류를 넘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필 기자

임실 생활체육관, 내년 상반기 개관

내부 마감공사단계 총사업비 59억 투입 여가 인프라 확충 기대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관(피구·탁구장) 건물 사업이 현재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 접어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59억원(국·도·군비 포함)을 투입해, 임실을 종합체육관 부지 일원에 연면적 약 1,302㎡ 규모의 단층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구조로 조성되는 체육시설로, 피구장과 탁구장, 부대 편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 공간이다.

이 체육관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72%로, 기초·골조 등 주요 구조 공정은 이미 완료됐다.

최근에는 실내 체육 마감재 시공, 전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관 건물 사업이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 접어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실군>

기·통신설비 배관 및 배선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군은 체육관이 준공되는 대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체육관은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체육대회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한수원,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맞손’

총사업비 58억 투입 2027년 10월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강희완)는 지난 23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되는 주천면 행복주택은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며, 오는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군은 올해말까지 백운면과 성수면 행복주택을 차례대로 준공하고, 내년에는 마령면 행복주택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차적인 행복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청년, 신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 23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진안군>

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유입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춘성 군수는 “행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주 인구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의 협력은 향후 다양한 지역 개발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전길필 기자

무주군 ‘흑미수박’ 지역 특산물 육성 힘써

육묘 지원 전년 대비 22% 증가 당도품질 높아수익성 기대

무주군이 ‘흑미수박’을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흑미수박 육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 수가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참여 농가는 71농가 20.8ha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사업당도 250.610주로 8.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인들은 “흑미수박은 재배 안정

성과 품질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수익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재배에 정성을 쏟아 무주를 대표하는 명품 수박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월 하순~5월에 모종을 심는 흑미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껍질이 더 검고 당도가 1~2브릭스 더 높다.(평균 12브릭스) 이뿐만 아니라 과즙이 풍부하며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무주군은 해발 400m 이상에서 재배되는 ‘조생흑미수박’을 지역 대표 농산

물로 육성하며 노지 기준 6월 말~8월에 수확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흑미수박 육묘 지원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흑미수박의 품질과 재배 기술 향상 등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흑미수박은 재배 안정성과 품질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수익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강풍 피해 농가 현장 행정

피해 작물 기술 지도 등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2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찾아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간 지속된 강풍으로 농업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군수는 피해가 확인된 계곡면 토마토 재배 농가와 천천면 아까시나무

전도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파손과 저온피해,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업무에 바쁘겠지만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념해달라고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군은 방문 농가를 포함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작물에 대한 기술 지도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천천면 송영고 농가는 “갑작스러운 피해로 막막했는데 군수님과 관계자분들의 신속한 지원과 관심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만나보니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소중한 농작물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피해를 하루 빨리 복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부서 선발

30일까지 부서·주민 추천

무주군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 실천 확산과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우수직원(5명) 및 부서(1개)를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무주군 소속 전 직원 및 부서이며 △규제·관행 혁신, 갈등 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했거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창의적으로 대응해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 △창의적, 도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한 우수 직원 등 5명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지자체 협업 활성화 지원

을 위한 합동회의 및 협업사례는 우대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부서 및 주민 추천을 받아 1·2차 심사평가를 거친 후 6월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우수직원과 부서를 선발하기 위해 △군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혁신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우수공무원들에게는 등급에 따라 근평 가점, 해외 배낭연수 기회, 포상 휴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우수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이종섭 장수군의원,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 촉구

“중장년층 지원, 지역소멸 위기 활력·인구 유입 필수정책”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섭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제3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이후 6개월,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5월 1일에서도 지원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수군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반면,



이종섭 장수군의원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섭 의원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통해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체육인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현실적 체육 정책 명확 제시

임실지역 체육인들이 지난 23일 500명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닌, 체육인의 입장에서 체육정책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인들은 이날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동을 갖고 “지역 체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농촌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현실적인 정책을 가장 명확히 제시한 후보가 이재명”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체육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체육인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체육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체육인도 정책의 주체로서 공공성 있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실군 체육회 김병희회장과 체육인들은 “우리의 지지는 누구의 강요도, 정치적 사익도 없이, 오직 정책을 기준으로 내린 자발적인 판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진안홍삼연구소와 진안군진흥홍삼산업클러스터사업

점사함, 효과적 조직구조 편제방식 등의 검토 결과가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관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 마련과 통합 시 인력 및 조직 조정방안과 운영형태 등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필 기자



완주군, 미취학 아동 '칫솔질 사진 공모전' 개최

완주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칫솔질 사진 공모전을 연다.
군은 평생 구강건강 관리 습관형성과 동기유발을 위해 '치카포카 깨끗한 치아 사진 뽑내기 마당'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진은 식후 칫솔질하는 모습 1장, 칫솔질 후 치아가 보이게 웃는 모습 사진 1장을 26일부터 30일까지 완주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공모전에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구강 위생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출신 전주교·북중 졸업생들, 정읍시에 장학금 기탁

정읍 출신 전주교·북중 졸업생들의 모인인 총동문회가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2일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재정읍 전주교·북중 총동문회(회장 정성섭)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는 물론, 고향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유)대신신재생산업, 김제 다문화가정에 상품권 기탁

각가정에 50만원 총1,100만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유)대신신재생산업(대표 김동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후원금 1,100만 원을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해 용지면 다문화 가정 22세대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가정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됐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이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걷GO! 줍GO! 놀GO! 그린챌린지'

영유아와 가족 등 600명 참여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과 전주·완주 지역 5개 어린이집은 23일 예코시티 세병공원에서 영유아와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걷GO! 줍GO! 놀GO! 그린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늘푸른어린이집(원장 고유정)과 데시앙우리어린이집(원장 전해경), 세안어린이집(원장 이영), 아이월드어린이집(원장 이미자), 아침해어린이집(원장 정미경)

등 5개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지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5개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업사이클링 디퓨저 만들기 △동물체험 △풍력공예 에어바운스 등 7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풍선 공연과 비눗방울 공연, 미니운동회 등도 펼쳐져 참석한 영유아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농협, '사랑의 쌀(米)' 독거노인·저소득층에 나눔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준)이 23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80포(약 800kg)의 쌀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은 진안농협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부된 쌀은 진안군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3곳의 단체를 통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주)전북은행, 무주 여성 청소년들에 보건 위생용품 박스 전달

(주)전북은행이 지난 23일 무주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보건 위생용품 110박스(275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주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전북지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나눔 실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LG전자 서림대리점 김덕룡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100만 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읍 변영로에서 LG전자 서림대리점 김덕룡 대표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토박이 김덕룡 대표는 평소 이음지역 아동센터 뱀난방기 기부 등 사회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김덕룡 대표는 "우리 지역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며 장학금 기부의 뜻을 밝혔다.
/부안=신성수 기자

제95회 춘향제의 감동, 서울역에서 사진전 개최

남원시는 지난 22일 서울역 맞이방에서 제95회 춘향제 사진전 개최해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서울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번 사진전이 남원의 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정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의 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정읍시에 기부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22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정읍지사는 지난 27개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왔고, 올해도 이건국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의 손길을 더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성내면지사, '희망집수리' 사업 봉사활동

고창군 성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대상은 독거노인 가구로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주택 처마 보수 공사와 도배·장판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고창=백종규 기자

식중독 예방 6대수칙
1.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2.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85°C) 1분 이상 익히기
3.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4.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구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5.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6.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 식품은 5°C 이하, 냉동식품은 -18°C 이하

〈一事一言〉



法服 위의 향응,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나

김관춘
논설위원

재판은 인간사 자잘못을 따져 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는 국가의 중대한 권능이다. 이 권능을 행사하는 판사는 단순한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지닌 판사가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재판장에서 있다면, 국민들은 과연 법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요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법의 지쿠연 판사다. 그가 최근 윤석열의 내란 관련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와 관련된 군 수뇌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재판 운영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 판사를 둘러싼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2024년 8월 서울 강남의 고급 룩살롱에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제보와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 중 지쿠연 판사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더해졌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특히 이런

인물이 하필이면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중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키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내리는 판결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정의는 룩살롱에 있고, 판결은 접대 뒤에 있다”는 냉소적인 비판은 이제 단순한 풍자가 아닌, 현실의 고발로 다가온다.

지쿠연 판사의 재판 진행은 이미 여러 차례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하게 규정된 ‘날짜 계산’을 시간 단위로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다르게 해석해서 풀어준 점, 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재판을 비공개로 감춘 점,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무리하게 서둘러 결론 내린 점 등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판사는 ‘그런 적 없다’며 향응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판 운영 방식만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자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즉각 지쿠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찰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향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는 사법농단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재판에서 배제되고,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

설령 향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더라도, 지금까지의 재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과 불투명성만으로도 법정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법복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의 상징이다. 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정의로울 결과를 향한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거기서 특혜와 부정이 엿보인다면 아무리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의 권위는 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재판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 공정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지쿠연 판사 사태’는 단순한 한 판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곧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

협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대법원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미적거리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그 책임은 단지 지 판사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룩살롱에서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법정에서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처럼 판사가 도마 위에 오른 사안일수록, 법원은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 국민들은 단순히 ‘의혹’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불투명성과 편향성,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들이 쌓여 지금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결국 대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닌, 책임 있는 조치다.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법 정의는 법조계 내부의 논리나 관행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룩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쿠연 판사를 당장 법정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이다.

사설

전북도 민생 추경, 도민들 삶 변화시켜야

전북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786억9천만원 규모로, 이는 본예산 대비 약 22%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상의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형 민생 회복’에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0억원 추가 확대해 총 1조 3천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역대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고, 전통시장에 축제와 안전시설 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는 취약한 민생 현장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자 하는 도의 의지다. 이 같은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이 되어줄 수 있다.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새만금산단 내 중소기업 성장센터 건립과 함께 투자보조금 예산 증액,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등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 방향이다. 현재까지 9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 8기 내 1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역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간과할 수 없다. 산업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추진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회발전재정구 지정 이후 추진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역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예산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도민들이 삶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려면 행정의 집행력 강화와 사후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또한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생태계,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층위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행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신뢰를 얻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의시

진실의 광부 / 박노해

희미한 한 줄기
진실을 따라

위험한 현장을
두발로 누비는 것
침묵하고 있는 말들을
살려내는 것
떨고 있는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저진양극단 사이에 묻힌
이미도래한 미래를

비추는 것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에서
진실한 사실을
채굴하는 것
권력에 맞서고
자본과 불화하며
오로지 독립된 고독을
견지하는 것

진실의 광부,
나는 기자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이후 '얼굴 없는 시인'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시를 발표하고 7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DJ정부때 특별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육중 애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독자광장

싱그러운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연두빛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어우러진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날 까지 가족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충만하다.

사랑을 배우고 이해와 포용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출발점.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했어도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의식 등 가정이라는 그 근본적 가치와 의미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 고독과 소외 속에서 더욱 빛나고 소중해졌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받아도 시들어버린다. 개인과 사회도 가족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진만큼 이웃과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보완해야 하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옆집의 안부를 묻고 마주친 이웃의 표정을 살피며 인사를 건네는 작은 관심에서 혈연을 넘어선 관계가 시작된다.

한분 한분이 서로에게 가족같은 존재가 되어주려는 작은 실천이 모여 비로소 온기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

어주고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족의 본질적 기능은 오늘 날에도 변함없이 중요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자. 혈연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보자.

작은 배려가 모이면 더 행복한 가정. 더 따뜻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꽃 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뿐 아니라 튼튼한 뿌리와 생태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도 가족이라는 토대 위에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더할 때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만개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112상황팀장 손주현 경감

문화재 열전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불교
- 지정일 - 2021년 7월 30일
- 시대 - 고려시대 말 ~ 조선시대
- 소재지 -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산 38-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5월 26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민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승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만든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은 물론, 모든 형태의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가족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정읍시 가족센터'가 있다. 이곳은 가족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건강한 가정,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급변하는 사회, 가족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맞춤형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삶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불화 문제를 경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각적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부부관계 회복상담', 세대 차이와 가치관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모-자녀 상담'은 물론,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그리고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경험한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돕는 '이혼 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계 없는 사랑, 함께 성장하는 정읍! 다문화가족 특성화 서비스 강화
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특성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제공하고 있다.

같은 줄이고 소통은 늘리는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정착에서 자립까지 지원 강화 주말에도 여는 육아나눔터, 부모는 '쉽'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방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행정기관 이용,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우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한국 사회 적응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설계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번역사와 언어발달지도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더욱 많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출장 통번역 지원은 이미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 1:1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 충직한 아이돌봄 지원으로 부모 어깨는 가볍게!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하다"는 말처럼, 시는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출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공간이다.

아이 키우는 양육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품앗이 활동과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다양한 놀이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말에도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는 즐거운 놀이 경험을, 부모에게는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모든 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 정읍시가족센터 새 단장으로 편의성 높인다
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정읍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 가족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

족 등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3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장하고, 상담실, 교육실 등 내부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설 확충·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가족센터 이용자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정읍에서 함께 웃어요!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과 가족한마당 행사

시는 이 밖에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 사업과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가정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의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한국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초에는 시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부스와 공연,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정읍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며 "정읍시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을 펼쳐,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민 기자

